

귀청을 올려주는 정의의 목소리

지난 10 월 10 일, 사천성 성도시무후법원에서 9 명 파룬궁학원에 대해 불법심판을 했다. 법정에 과감히 나선 북경과 당지의 7 명 변호사는 대법제자들을 위해 정당한 리치로 날카롭게 무죄변호를 했다. 법정내외에 경찰들과 사복밀탐들을 빈틈없이 배치해 놓았지만 변호사들의 힘찬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의 귀청을 울려주었다.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불법이다.

변호사들은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에는 파룬궁을 사고로 정할수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 9 년동안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당길전(吉唐田)변호사는 《헌법 제 33 조에 <국가존중과 인권보장, 신앙자유는 세상사람들이 다 공인하는 기본인권이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파룬궁학원들이 찌똥런을 신앙하는 것은 응당 헌법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집법인원들은 헌법이 세워 놓은 신앙자유 원칙을 위반하여 억울한 안건과 틀린 안건을 상당히 많이 빚어냈다.》고 지적했다.

한지광(韩志光)변호사는 《헌법제 300 조에 비춰보면 파룬궁신앙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상 무효이며 적용할수 없다. 파룬궁신앙자유에 대해 고압정책을 쓰는 것은 세상원칙과 중국헌법을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정반대로 되었고 지금 파룬궁은 전세계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기률과 법을 지키는 파룬궁학원들에 대해 감시, 뒤따르기, 흠쳐듣기, 집수색

징벌행위는 의심할바 없이 모다 위법이다.공민의 자유를 제압하고 박탈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또한 파룬궁학원을 고문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범죄에 속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리부춘(李富春)변호사는 《"610"이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 및 위협에 대해 법정으 들은척만척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박해를 정지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수 없다.

변호사들은 일제히 《파룬궁학원들은 아주 순박하고 선량하며 아주 너그럽고 참을성 있는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행위는 사회에 대해 아무런 위해가 없기에 당연히 합법적이다.우리는 변호사로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도의상 거절할수 없는 책임이다.파룬궁학원들은 9 년동안 모진 박해와 타격을 받아 집과 가족을 잃었고 한집식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헌법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신앙자유 원칙을 락실해야 하며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정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기했다.당길전변호사는 《일시적인 강약(强弱)은 힘에 있고 천추의 승부는 도리에 있다. 국제법정에서 추구를 받고 있는 범죄자의 오늘은 곧바로 우리 나라에서 공민의 인권을 침범한 범죄자의 래일이다.》라고 단호히 제기했다.

불법법관들은 법을 어기고 강제로 파룬궁학원들에게 억울하게 3~7 년의 판결을 내렸다.종방경(钟芳琼)등 파룬궁학원들은 중급법원에 상소 준비를 하고 있다.



세익에 감사하기
대만 3 천명 단체연회
지난 12 월 13 일, 대만 남부 파룬궁학원들이 대만 남부 현 중화시춘안농장에서 대형련공활동을 하면서 파룬궁학원의 고상한 정신품모와 파룬따파의 아름다운예를 펼쳐보였다.원쪽 사진은 중국문자 찌똥런(眞善忍)과 영어문자 파룬따파(FALUNDAFA)를 새겨 놓은 단체련공하기 장면이다.

세계인권일에 각국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을 견책



말레이시아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연변박해진상 박해 받아 세상 뜬 파룬궁학원 김준걸

연길시 조양천 파룬궁학원 김준걸(金俊杰)은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후, 길림성정부에 상방갔다는 리유로 장춘시경찰학교에 갇혀 이도분국 악경들에게 심문과 혹형을 당했고 대광구류소에 15일동안 갇혀 있었다.

1999년 10월 14일 그는 북경에 상방갔다는 리유로 로동교양 1년판결을 받고 분진로교소에 갇혀 모진 혹형을 받았다. 10여명 악경들이 달려들어 그를 가운데 세워놓고 앞가슴과 뒷잔등을 마구 밀쳐 숨이 막히게 했으며 또 길이 2m, 넓이 13cm, 높이 1m 인 책상에 앉혀놓아 (“목마태우기”형벌임) 엉덩이가 배기고 아프게 했다.

김준걸은 로동교양 기한이 7개월 연기되어 2001년 3월에 조양구로교소에 전의되었다. 악경들은 그를 땅비닥에 엮어놓고 8호 쇠줄로 감아놓은 손가락만큼 굵은 몽둥이로 목,허리,다리,발을 사정없이 때렸다. 식사시간이 되면 악경들은 죄인들을 시켜 그의 배를 차놓아 속이 메스꺼워서 나중엔 밥 한술도 먹을수 없었다. 악경들은 그가 죽을가바 두려워 석방했는데 그는 어머니한테 업혀 집으로 돌아왔다.

2001년 9월에 김준걸은 랍치되어 룡정시간수소에 15일동안 갇혀있다가 로동교양 2년 8개월 판결을 받고 9대음마하로교소에 호송되었다. 오랫동안 작은 감방에 갇힌 그는 단식항의를 했는데 악경들은 그의 사지를 묶어놓고 독한 소금물을 입에 억지로 주입시켰다.

2004년 5월에 만기되어 집으로 돌아온 김준걸은 (피골이 상접한 그의 얼굴에 피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생활이 가난하여 허약한 몸을 보양할수 없었고 앓아 누워도 치료할수 없었다. 그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때론 각혈을 했으며 몸은 점점 여위여 체중이 60근도 안되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폐결핵개방기였는데 폐의 여러곳에 큰 동공이 났다. 지난 12월 13일에 그는 35세를 일기로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제지시키자!



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제지시킬 것을 호소했다.(윗 사진)

◆ 유럽안전과 협력 조직회의는 지난 12월 4일에 헬싱키에서 소집되었다. 당지 파룬궁학원들은 의회대청 앞과 의회빈관 부근의 길 옆에 포어판을 세워놓



랜카드와 파룬궁박해진상 전람판을 펼쳐놓고 중공의 죄악을 폭로하고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제지시킬 것을 호소했다.(윗 사진)

◆ 지난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중,일,한 3국 수뇌회의가 소집되었다. 당지 파룬궁학원들은 중국령사관앞에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정지하라”는 프



퇴막소식

- ▶ 뉴질랜드 각지에서 거행한 성탄절시위행진에서 파룬궁학원들의 천국악단,오고대,선녀대,꽃차는 당지 민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 ▶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태국 제 1 차정신과학전람회에서 파룬궁전시실은 제일 인기를 끌었다.요청을 받은 파룬궁학원들은 주최장에서 파룬궁에 관한 특별강좌를 했고 전체 관중들에게 5조 공법을 배워주었다.



연변박해소식

- 안도현 파룬궁학원 한숙매(韓淑梅)는 지난 12월 10일에 집에서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연변대학 파룬궁학원 양국서(楊國瑞)는 금년 6월에 장춘흑취자녀자교소에 갇혔다.모진 혹형과 시달림에 그의 몸은 점차 허약해 지고 나중엔 당뇨병까지 걸렸다. 2007년 12월 19일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두눈이 거의 실명되었고 의식이 흐리멍텅하여 생활을 자립할수 없게 되었다.